

빛가람혁신도시 대학부지 살 학교 없나요?

전남도, 이전기관-대학 연계 목적 1만4538㎡ 지정

지역 대학들 “여력 없다” ... 전문가 “선제적 투자 필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내 대학 부지가 지역대학들에게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이 미분양 클러스터 부지를 세분화하면서 대학 부지를 새롭게 지정했기 때문이다.

10일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따르면 미분양된 산학연 클러스터 6개 필지 25만 1000㎡(7만6000평)를 모두 77개 필지로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1만4538㎡(약 4300평)를 대학 부지로 했다. 이 부지는 평당 140만원으로, 모두 60억원이던 구입할 수 있다.

지원단은 이전공공기관의 연구개발사업이 활발하고, 대학졸업생들의 취업에도 보탬이 될 수 있어 지역대학들이 충분히

매입할 것으로 보고, 부지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국의 경우 지역 ‘혁신’ 주체가 지역대학인데다 한국전력 등 이전 공공기관들이 기술 개발 및 인재 육성에 있어서 지역대학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부지 별도 지정의 배경이다.

하지만 지난 5일 전남대 등 지역 8개 대학 기획처장·산학협력단장, 광주시·광주발전연구원·전남발전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연계사업 발굴회의’에서 대학 관계자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이날 참석한 대학 관계자들이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학생 수 감소 속에 추가 재원이 없다는 데다 현재의 캠퍼스도 아직 여지

■ 빛가람도시 대학부지 위치도



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다만 동신대는 정부 지원을 받아 5D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감미디어사업단이 부지 매입 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단 관계자는 “애초 대학 부지가 논의 안건은 아니었지만, 지역대학들이 모두 어렵다는 반응을 보여 안타까웠다”며 “앞

으로 충분한 시간이 있는만큼 시간을 두고 매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혁신도시와 관련 대학들의 소극적인 자세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교수는 “한국전력 등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의 기술이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들 공공기관과 연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한국전력은 최근 지역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초전도 분야 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해 학과 신설이나 별도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지역대학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한승원 칼럼

나의 영혼에는 모든 인생살이에서 만난 수많은 선배나 선생님들의 그림자가 투영되어 있고, 나는 그들 가운데 가장 힘이 센 그림자가 이끄는 대로 살을 꾸려간다.

가령, 젊어 한 동안 중학교에서 국어 교사 노릇을 한 나는 내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적에 나를 가장 감동적으로 가르친 국어선생이 하던 방법을 알게 모르게 본떠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물론 내가 대학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할 때 공부한 교육철학이나 교육심리 따위를 창의적으로 응용하기도 한 것이지만, 그 교편의 모양새 8할 이상은 내가 존경했던 그 은사의 인격체 모습을 답습하여 실행했던 것이다.

그것은 그 은사의 모습을 내 속에 그림자로 품고 살아 왔다는 것이고, 그림자가 교직에 있는 동안의 일거수일투족에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내가 소설가로서 활동함에 있어서도, 내가 사숙한 은사의 순수함이나 선비정신, 혹은 책으로 전해오는 성인의

이게 된다.

재벌가의 아들딸은 재벌인 부모가 직원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군림하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들은 어른이 되어 회사를 물려받은 다음에는 자기의 직원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군림하게 된다.

우리는 일제식민지 시대와 군부 독재시대를 거쳐 바야흐로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인간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한다. 돈은 권력을 동반하게 되고, 법과 도덕 위에서 군림한다. 돈은 신의 자리에 앉아 있고, 무엇이든 지킬 수 있고 부릴 수 있다.

자식을 하나나 둘만 낳아 양자나 공주처럼 키우고 가르치는 자본주의 세상 사람들의 가슴에는 돈(神)의 위력이 거대한 그림자로 투영되어 있으므로 행복을 돈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하려고 든다.

인간은 필요에 의하여 돈을 만들었는데, 돈이 인간을 노예로 부리게 되

나를 지배하는 그림자 이야기

삶을 그림자로 지닌 채 그 그림자가 이끄는 방향으로 집필 활동을 하여오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러하기 때문에 학계, 예술계, 정치계에는 학맥이나 인맥이나 유파가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 다.

아들이나 딸을 시집보낼 때, 상대방 쪽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삶(내림)을 세세히 보는 것은 상대방 쪽이 자기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삶의 형태를 그림자로 새겨 가지고 있으면서 그 그림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 아내노릇 남편노릇을 처음으로 하게 되고, 직장에서 직책을 가지면 직책자로서의 삶을 처음으로 살게 된다. 자식을 낳고 어머니노릇 아버지노릇을 처음으로 하게 된다. 자기의 선배인 부모들이 하던 대로 따라하게 된다. 모든 선배들의 말과 행위는 내 속에 하나의 뚜렷한 그림자로 각인되고, 그것은 내 삶을 이끌어 가는 것이다.

어머니에게 폭력을 쓰곤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은 점차 자기의 아내에게 폭력적인 남편이 되기 십상이다. 독선적이고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딸은 독선적이고 권위적

었다. 돈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머리에 약령 같은 그림자로 드리워져 있고 그 약령은 사람들을 이끌어나간다.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림자에는 성스러운 그림자가 있고, 악령 같은 그림자가 있다. 그윽하고 성스러운 윤리의 식으로 살아온 성자들의 향기로운 삶을 책으로 읽으면서 살아온 사람은 그 성스럽고 향기로운 그림자가 내면에 투영되고, 그 그림자가 이끄는 대로 살기 때문에 삶이 향기로워지고 성스러워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물리적인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평생 악전고투한 사람들 받들며 살아온 사람은 내면에 그러한 악센 그림자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책을 읽지 않고, 내부의 그 그림자처럼 물리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한다. 타협하거나 소통하지 않는 독선적인 삶을 살아야 직정이 풀리고, 그러한 삶을 원칙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위의 두 그림자 가운데 어떤 그림자를 품고 살아야 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그림자를 영혼 속에 간직하고 살아가게 해야 하는가. <소설가>

김항식 전 총리, 獨 바이체커 장례식 참석

김항식 전 국무총리가 1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 전 독일 대통령의 국장(國葬)에 우리 정부 조문 사절로 참석한다고 외교부가 10일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를 위해 10~12일 독일

에 앞서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은 요



아함 가우크 독일 연방대통령 앞으로 조전을 보내 폰 바이체커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달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지난 4일 주한 독일대사관을 찾아 조문하고 조문록에 “폰 바이체커 대통령은 왜곡 없이 역사를 직면하는 도덕적 용기를 몸소 보였으며 독일의 통합과 통일을 위한 그의 유산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애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광태·강운태 前 광주광역시 -2015. 2. 10(화) 12:00 조직위원회 12층 회의실-



U대회 명예위원장 위촉 10일 오후 광주U대회 조직위 회의실에서 열린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명예위원장 위촉식' 후 공동 조직위원장이 윤정현(가운데) 광주시장과 명예위원장에 위촉된 박광태(왼쪽)·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10개 학교중 4곳 “보건교사 없다”

박주선 의원 지적

10개 학교 중 4개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급별 보건교사 배치현황’에 따르면 전국 1만1612개 초·중·고교 중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7539개로 65.0%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17개 시·도 가운데 보건교사 배치율이 60%를 밑도는 곳은 10곳이나 됐다.



보건교사 배치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시로 48.9%였고 이어 강원 49.7%, 전남 50.9%, 제주 51.1%, 충남 51.9%, 경남 54.3%, 전북 55.2%, 경북 57%, 충북 59.2%, 울산 59.6%였다.

반면 서울은 1329개교에서 일하는 보건교사가 1217명으로 배치율(91.6%)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에 부산(80.8%), 대구(79.5%), 광주(73.5%), 인천(73.4%), 대전(69.5%), 경기(68.8%) 등의 순이었다.

박 의원은 “시골학교가 많은 농어촌 등의 지역은 의료시설 역시 부족해서 보건교사가 없을 경우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어렵다”며 “교육부는 학교당 보건교사를 1명씩 배치하도록 한 학교보건법상 의무사항을 빨리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70개 경기장 안정적 전력공급 구축

한전-U대회조직위 양해각서

조환의 사장 명예홍보대사에

한국전력은 10일 한전 광주전남본부에서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조직위원회와 무결점 전력공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전은 양해각서를 통해 주경기장을 포함한 주요 경기장에 대해 3단계 전력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광주·전남·북 전체 70개 경기장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1단계로 오는 4월까지 대회기간 사용되는 전력공급용 간선 1개 회선을 신설하고 5개 회선의 선로를 보

강하기로 했다. 또 점단 진단장비를 활용해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조환의 한전 사장은 “임직원과 가족이 직접 외국어 통역과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입장권구매, 홍보관 운영, 문화행사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밝혔다.

윤정현 광주U대회 공동조직위원장도 “한전과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무결점 전력공급과 함께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에너지벨리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날 U대회 조직위원회는 조환의 한전 사장을 광주 U대회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일상의 숨통을 찾아 떠나는 여행, 거금 생태숲

바쁜 일상에 지친 당신에게 심포가 필요하다면, 고흥 거금도 생태숲으로 떠나보자!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거금일주로 1809-27 거금생태숲 입구

고흥, 그곳에 가면 특별한 것이 있다

대한민국 건강 먹거리 1번지

고향의 맛이 담긴 고흥 청정 농수특산물!

구입처 고흥농수특산물판매장: 061. 832. 0776 전남 고흥군 동강면 고흥로 4797 고흥 청정 마켓: 080. 903. 9035 http://goheungmarket.com